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90 목회 지침 : 섬기는 교회

주간충원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90년도 첫번째 성찬예식 거행



본 교회에서는 90년도 첫주일을 맞이하여 새해 첫번째 성찬예식을 지난 1월 7일 주일 1, 2, 3, 4부 예배 시에 거행했다.

성찬예식은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집례로 본 교회 시무장로와 은퇴장로, 그리고 협동장로가 배찬을 담당하였고, 성찬상 준비를 위하여 성례차장 전용해 집사를 비롯한 40명의 봉사위원이 수고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성찬

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들어야 하며 그러한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잔을 들었으며, 신년을 맞은 새로운 각오와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짐하였다.

고 김한홍 장로 교회장

초등1부~6부 예배
주일 오전 9시에

지난 1월 6일 숙환으로 소천한 고 김한홍 장로의 발인예배가 1월 8일 유가족과 교역자, 장로 및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종윤 위임목사의 집례 하에 교회장으로 임수되었다.

고 김한홍 장로는 1964년에 본 교회의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 교회학교 새신자부 부장, 동산관리 위원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20여년간 헌신적으로 섬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유족으로는 미망인 조동숙 권사와 1남 1녀를 두셨다.

차신득 장로

충현도서관에 도서 기증

본 교회의 차신득 장로는 지난 1월 10일, 89년 10월 5일에 소천한 선친 차병국 목사가 남긴 장서를 고인의 뜻을 받들어 충현도서관에 기증했다. 이에 이종윤 위임목사는 차 장로에게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증된 도서는 기독교 관련 도서가 176종 654권, 일반 도서가 59종 380권 등 모두 235종 1,034 권이다.

소망부 신년하례회

소망부는 지난 1월 7일 위임목사가 선물한 떡과 과일을 대접받으며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지내며 교회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로 다짐하였다.

초등1부~6부 예배
주일 오전 9시에

신년부터는 기존의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초등 1부~6부로 변경되면서 종전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던 예배는 각 부별로 오전 9시에 한 번만 드리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런 변동 사항에 유의하여 어린 영혼들이 신앙 교육의 장이 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배워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대학부 집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매주 주일마다 집회를 갖던 대학부가 신년부터는 집회시간을 변경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교육관 514호에서 모이게 된

잠실 시영, 진주, 미성 구역 연합 예배드려

제11교구 5지역의 잠실시영, 1,2 및 진주, 미성 구역 (협력구역장 안성영 집사, 박원규 집사)은 지난 1월 9일 박영신 권사가 정에서 50여 명의 구역 식구가 모인 가운데 협력구역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었다.

이 구역은 "서로 사랑을 나누자",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서로 교제를 나누자"라는 구역 수칙을 정하고 89년 한 해 동안 크게 부흥 성장했다.

90년을 시작하여 첫번째 연합 모임인 이날 예배에서, 새로 교구를 담당한 김동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든 구역 식구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게

■목회자 단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K. 권사님, 감사합니다.

주일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붓물처럼 밀려나오는 와중에서도 빠짐없이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면서 제게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시는 권사님, 주름잡힌 얼굴과 구겨진 손이지만 언제나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아 주시면서 흔들어대시는 권사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격려는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는 항상 큰 격려가 되어왔지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도망가처럼 빠져

가는 교인들을 볼 때는 오늘 설교가 또 별로였구나 하며 속으로 울고 서 있는 제게 권사님이 나타나실 때면 항상 새 용기와 힘이 되곤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권사님의 이름도 여쭙어 보지도 못했지만 권사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에게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권사님의 가정에 이 해에도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90년 1월 9일

이종윤 목사 드림

위임목사 동정 기독교 교육자 세미나에서 강의
교회교육 연구위원회 회의 주관

이종윤 위임목사는 오는 1월 15일에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기독교교육자선교회 주관하는 기독교 교육자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되어 "기독교 지도자론"이라는 주

제로 강의를 한다.

한편 이 목사는 오는 16일 본 교회의 교육연구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제 모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기도로 헌신하는 권사회

매월 1회 이상 교회와 민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본 교회 권사회는 작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충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 기도회는 교구별로 4개의 기도조를 편성하여 부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기도회를 하고 있다.

구립 28일에는 전체 권사회 철야 기도 모임을 이어나 권사의 사회와 김학진 목사의 설교로 은혜 중에 마쳤다.

다. 찬양, 말씀과 교제, 성경공부 순으로 이어지는 이 집회에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충현유치원 원아모집

1990학년도 충현유치원 원아 모집이 있다.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으로 나누어 모집하는 충현유치원 원아 모집의 원서 교부는 1월 3일(수)부터 19일(금)까지이고, 접수는 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이며, 장소는 유치원 교무실 (소석관 201호)이다. 구비서류는 입학원서, 사진 2매이며 전형료는 1,000원 (신입생에 한함)이고 전형 방법은 선착순 서류 전형과 면접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충현유치원 원아 모집에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오전 7시	II부: 오전 9시
	III부: 오전 11시	IV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청년3~4부, 소망부, 영어부, 직장전도부, 새가족부, 새가족부, 사립부, 예배대부, 탁아부, 상동경로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상 담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일반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6-5122)
	의료상담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세무	셋째 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성경 강해

하나님의 교훈, 인간의 교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
(요 7:14~18)

이 중 윤 목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 중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간행된 '예수전'은 600여권에 이릅니다. 이것은 영어, 독일어, 불란서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을 비롯하여 전세계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는 다음과 같이 둘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기록하고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인격(품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출간된 책들인데 전자에 해당하는 책들은 대개 복음주의적인 것들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책은 대개 자유주의적인 것들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다루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은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

쳐 버렸다면 모세는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겼다는 것은 굉장하다고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글을 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운 적이 없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언어는 아랍어 아니면 헬라어였는데 한국어로 하는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훌륭하게 된 사람들 중에 배우지 아니하고 훌륭해진 분이 계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젊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하버드대학교의 수학박사입니다. 그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와서 신학 3년 과정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은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찰관, 관리자, 이상가, 혹은 모든 것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창조주시오, 역사의 섭리자시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운행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만들어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서서 세상도 보고 우주도 보고 역사도 읽고 나라의 형편도, 개인의 문제도 보아야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문제나 보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낱 구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나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셨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깨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주면서 이것을 꼭 붙잡으라 하였습니다. 환자가 그 십자가를 잡고 하는 말이 "이 십자가는 내가 일년 전에 깎아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나무로 깎아 놓은 십자가가 죽음의 고개를 넘어 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멘트로 만들어 세워 놓은 불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쁨이나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창조의 힘이 있으며,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기도소리가 달라지고 입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서 대인 관계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새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더 단 것입니다. 말씀에 사무쳐서 건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교훈 통해 하나님 높이신 예수님

나눔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입장입니다.

라디오를 통하여 불교의 설법을 들을 때에 불교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진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교훈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나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분 자신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이어 그분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1. 예수님의 교훈

요한복음 7장 14절에는 '명절 중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명절이 시작되어 나흘이 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나타나시지를 않고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기이히 여겼습니다.(요 7 :

영어성경에 보면 '기이히'라는 말은 '굉장한', '놀라운'이라는 단어(marvelou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 산에 올라가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놀라는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 것을 한낱 저녁 식탁의 얘기거리로만 지나

을 졸업하는데 강의실에는 한번도 들어오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할 것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합니다. 강의실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모든 책을 다 읽고 공부하여 시험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뛰어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의아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요 7:16).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질문에 "내가 독학을 했지요,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열심히 연구했지요"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냈을 텐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 초등교육기관(벤 하쓰 세벨 : 책의 집), 고등교육기관(벤 할 탈무드 : 설명의 집), 전문교육기관(벤 함 미드라쉬 : 연구의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말씀을 하시니 랍비들이 놀라고 제사장들이 놀라고 서기관들이 놀라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야 할 진리는 인간적인 교훈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55:8,9).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가 진리 깨달아

인간을 바라 볼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비교적 쓸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모두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속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관에서도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인간의 교훈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두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만으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독일의 어느 신부가 죽어가는 한 성도에게 임종 도유례를 주기 위해서 심방을 하였습니다. 모든 의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교훈을 비교하는 방법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편견이나 고집을 내어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교훈을 분별한 후에는 그 교훈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본 교회는 지난 1988년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선교, 구제의 세기등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였다.

특히 전국 일꾼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학교의 교재를 편찬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작년 1월 5일에 교회학교 교재 개발을 위한 교회교육연구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다음은 위원회가 확정한 기본 방향이다.

교회학교 신앙교백
첫째,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셋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 전적 타락,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다.

다섯째,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며, 중생 시키시며, 내주하시며, 성화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며,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케 하시며 책임 있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영생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일곱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도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하나됨을 믿으며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기도, 구제와 봉사임을 믿는다.

여덟째,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

교육이념(천국시민생활)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교육목적(천국일꾼양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성령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온전한 천국시민이란 다음과 같다.
1. 거듭난 인간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교육목표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의 계시로 깨달아 인격적 관계를

5.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계획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한다.

6.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성경적인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는 가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실천케 하므로써 하나님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

10.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11. 재물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자족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의롭게 벌고 바르게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12. 삶
성도는 천국시민으로서의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한다.

교과 과정 및 교재개발지침
첫째, 충현교회 교회학교 26개 부서를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성경적 진리를 생활에 적용토록 한다.

둘째, 교사 지침서 활용을 위한 보조 교재, 특수 교재도 개발한다.

셋째, 도시와 농어촌 등 어느 계층에서도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교재를 개발하기로 한다. 또한 효과적인 교재 개발을 위하여 시험교사 훈련 단계에서 교사훈련 단계로 발전시키고 교사실습 단계에 이르도록 계획하고 중간 평가를 통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교계 인사로는 오인택 교수, 이영덕 교수, 정규남 교수, 주선에 교수가 위촉되었고 본 교회 교역자로는 윤용규 목사, 김영구 목사, 김성윤 목사가 수고하게 되었다.

또한 교재 집필을 위해 각 부별로 3명씩의 집필진을 구성하였는데 교계의 권위자를 집필진의 리더로 하고 본 교회 교역자를 집필자로 하며 각 부에서 다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역임한 사람들을 평가자로 하였다.

앞으로 본격적인 교재 집필을 위하여 2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교회학교 교육 교재가 1992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특집

충현교회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연구위원회

2.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체험하고 그의 인격과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며 일상 생활에서 그를 증거하도록 한다.
3. 성경
신구약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인생의 삶을 풍성케 하므로 성경을 즐겁게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게 한다.
4.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성령의 교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각자가 감당하게 한다.
5.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계획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게 한다.
6.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성경적인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는 가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실천케 하므로써 하나님께
7. 이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형제이며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도록 자아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도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8. 역사와 우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9. 사회와 국가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

세기등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윤 중 성 장로

예배는 우리의 신앙행위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며 구원 받은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 성역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요4:2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자세에 대한 절대 규범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태와 규모가 어떠하든지간에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그 동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 온 교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예배 자세에는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산 제사”(롬12:1)와 같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어느 순서는 중요하고 어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뒷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조심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나쁜 습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요4:24).

아울러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위하여 개인적인 사진 촬영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의 자세와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설교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과다한 사진 촬영은 설교자의 마음과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필요한 사진 촬영은 교회가 지명한 사진 기자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자”는 표어를 세우고 1990년을 출발한 충현교회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충현교회는 한국 교회에 모범적인 예배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호 세기등은 윤성철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90년도 제직회 부서별 위원

제직회 서기: 정홍식, 부서기: 허명호, 위원: 채수경, 김영은, 허명호, 황의만, 김구형, 박찬섭, 백운홍, 유영식, 추병창, 손기현, 박원화, 예배부 부장: 손동운, 1부차장: 김선구, 손영섭, 이성실, 김윤창, 최만수, 2부차장: 이하영, 3부차장: 이용일, 박창식, 차기풍, 한중구, 김인관, 4부차장: 한경선, 찬양차장: 윤병조, 김낙홍, 박호영, 이승구, 김여순, 수요1부차장: 김정만, 수 손영섭, 김동삼, 최진성, 노재봉, 요2부: 고병국, 영어예배부 부장: 김중성, 장영창, 박두영, 김종규, 박용삼, 차장: 이부성, 성례부 부장: 김봉준, 권용동, 김종민, 한길동, 김방진, 차장: 전용해, 위원: 이옥 김명길, 김영인, 김일교, 이승득, 녀, 이도영, 민건식, 노영숙, 장수 장영환, 이교영, 손동기, 이흥길, 경, 이수덕, 전부덕, 심영순, 천순 박두영, 문광석, 이민규, 강신호, 자, 필기복, 이인숙, 변숙복, 한계 박홍남, 김용호, 김대진, 이운용, 식, 신명희, 유순녀, 우순성, 김중 김희선, 최남하, 봉태일, 채현식, 복, 이명자, 김순이, 전춘자, 이승 이학주, 배한용, 박승배, 최형렬, 차, 서양순, 송순자, 방개운, 박우 이창우, 김문섭, 김영국, 김한원, 순, 반정현, 김옥태, 신군자, 김남 이동건, 빈해수, 김종록, 김창기, 진, 김석운, 윤여천, 조희순, 신일 고문봉, 이병재, 조영철, 김상렬, 순, 김준자, 김순동, 김명숙, 이명 권장환, 홍성주, 박종천, 장길남, 숙, 이신일, 백인숙, 최혜영, 백영 신용한, 이철화, 김길선, 조경백, 희, 찬양부 부장: 임광식, 교회학 박일태, 황일호, 오재일, 송한천, 교1부 부장: 조선규, 교회학교 2 이영환, 이세순, 엄낙규, 이연구, 부 부장: 김차생, 교회학교3 부부 이승우, 우종규, 임화택, 정영길, 장: 김영개, 교구부 부장: 우기전, 박달옥, 김종성, 배호남, 김태영, 선교부 부장: 이영세, 불교권 담 김규중, 한만교, 서춘석, 김은석, 당: 이호연, 한두교권·회교권 담 건축부 부장: 오진국, 위원: 박철훈, 당: 박문태, 공산권: 이부성, 세속 윤명식, 이용선, 이태규, 우 기전, 오정현, 이창호, 최명환, 권: 박종규, 가톨릭권: 김상규, 선 김광신, 이옥녀, 백영희, 노영 김대호, 진홍용, 정홍식, 최동규, 교연구위원: 이영일, 이기성, 전 홍춘식, 회계부 부장: 박철훈, 특별 회계 부장: 오정수, 일반회계부장: 김광남, 심일조현규, 김두원, 이영 일, 진학태, 양삼주, 박문태, 홍시 오, 주원홍, 유상태, 이성근, 김동 근, 박종현, 한송규, 박병택, 안중 욱, 지영일, 이예경, 김신경, 감사 현규: 임봉남, 조중광, 이계인, 박 창서, 김정호

(다음호에 계속)

새아침의 기도

새벽을 알리는 빛으로 오소서



김 동 열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알리는 파수꾼의 바램보다
더 깊은 어둠의 오랜 바램을 아시고 빛을 보내
시고 빛으로 오시고, 빛을 우리 생애 가운데 부
여주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돌리
옵나이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생이 물같이 쏟아지는 이
혼돈된 대지 위에
주님은 날개를 드리우사
우리의 불신과 미움, 경멸과 억압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공평을 바라셨으나 불의뿐이었고,
열매를 바라셨으나 들포도밖에 맺은 것이 없
으며,
기록을 원하셨으나 우리의 몸과마음은 불신과
불충으로 얼룩져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
소서
나의 가는 길을 한 치까지 세시는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결길로 갔던 때도 많았
사오며,
이웃이 불행에 떨어도 마음에 감각이 없었으
며,
꽃봉오리 인생이 불나비 되어 불꽃 속으로 사
그러지는 무수한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나라의암
담한 장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무력한 인생이
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출세지향주의로 치닫는 위정자들을 보며 뒤에
서 원망하고 비웃기는 하였어도
그들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간하지 못하였으
며,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구
했을 때도
나만의 안일을 추구하며 동조하지 못했던 불
성실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러져 가는 우리의 인생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
그대로 드러날 텐데,

오늘의 생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향하
여 줄달음치던 미혹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질서와 조화와 생명을 이루신 주님,
새 창조주로 오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떠서 이웃의 진정한 요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씨늘한 달빛도 영롱한 별빛도 없이 먹물을 쏟
아 놓은 것 같은 어둠,
바로 죽음이 깃든 그곳에 생명으로 젖어드사,
혼돈스러우나 무섭도록 적막하고
텅 비어 있으나 어둠만으로 가득 찬 불꽃 같은
심령에
새벽을 알리는 빛으로 오시옵소서.
암탉이 알을 품듯 우주를 품으시던 위로의 주
님이시여,
새 피조물이 되어 감각을 부여하고 온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신선함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
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불안과 평강이 함께 거하며
삶과 죽음이 함께 머무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각기 자기의 길을 달릴 뿐인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1990년도는
세계가 조화롭고, 민족이 번영하며,
교회가 확장되고
개인이 구원과 능력을 힘 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우신 천천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흑암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다락방

웨스트 민스터 소오리 문답

제3과 신·구약 성경

성경: 담후 3: 16, 17

요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 31)

찬송: 235, 241

제2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코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
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참조성구: 엡2: 20; 담후3:
16; 요일1: 3-4; 계22: 18-19).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참조성구: 전
12: 13; 미6: 8; 요20: 31; 담후1: 13, 14; 담후3: 16).

설 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가지 방편으로 나타내신다. 즉 자연계시(롬1: 19, 20)
와 특별계시인 성경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
므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
한 규범이 된다.

질 문

1.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요20: 31)?
2.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십니까(눅1: 70; 행4: 25)?
3.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담후3: 16;
벧후1: 20, 21)?
4.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마22: 37-40)?
5. 신·구약 66권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
니까(계22: 18, 19)?